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6월 22일(수) 행사종료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6. 22.(수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담당과장	김규성 과장(044-203-5320) 권영학 과장(044-204-7521)	담 당 자	이헌두 사무관(044-203-5316) 고건호 사무관(044-204-7524)

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!

- 「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」 및 「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」 발표

- 원전 일감 925억원 긴급 발주, '25년까지 1조원 이상 발주

- 자금난 해소에 3,800억원, 기술경쟁력 강화에 6,700억원 투입

□ 정부는 6월 22일(수)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**'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'를 개최**함

○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**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**하고, **미래 경쟁력을 강화**하기 위한 **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**하기 위해 마련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「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」**을,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, 이하 중기부)는 **「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」을 발표**하였고, **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**을 발표함

<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개요 >

◈ **일시/장소** : '22.6.22(수) /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

◈ **참　　석** : 산업부 장관, 중기부 장관, 기업인 등 30여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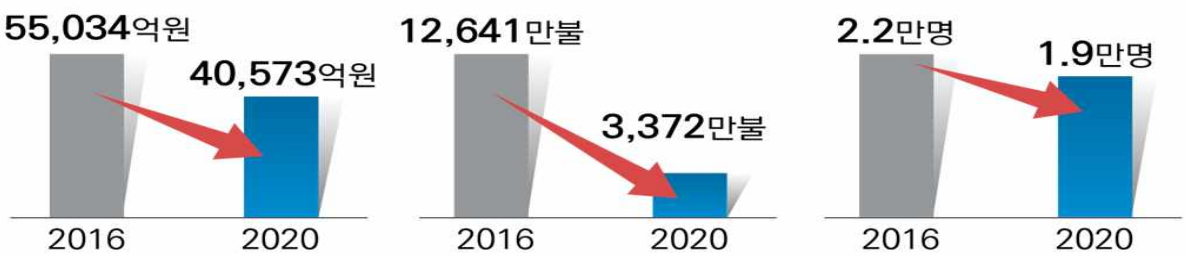
◈ **주요내용** :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(산업부),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(중기부), 협력업체 상생방안(두산에너빌리티), 원전업계 현장목소리 청취 등

□ **(상황인식)**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**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**되고 있으며, **미래 원전시장**에 대해서도 **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**인 상황

* (미국)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투자, (프랑스) 신규원전 6기 건설 확정, 추가 8기 계획
* 전세계적으로 70여종의 SMR(소형모듈원전) 개발중

○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**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**이나,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**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**

< 매출 > **< 수출 >** **< 인력 >**



* 출처 : 원자력산업실태조사(한국원자력산업협회)

○ 이러한 상황하에 정부는 우리 **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**을 위해 **긴급 일감 확보**와 함께 **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**하다고 인식

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

❶ 원전 협력업체에 **금년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**
❷ **'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**을 신규 발주
❸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**수출에 역량을 결집**하여 업계의 **일감 연속성 강화**
❹ **총 3,800억원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**과 **6,700억원 규모의 기술 투자**

1 **(일감 조기 공급)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** 등에 **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금년중 긴급 공급**

○ **'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**하고,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, **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·4호기**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**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**

2 **(원전 수출 확대)** 원전산업 생태계의 **일감 연속성을 유지**하고, **지속적인 성장을 지원**하기 위해 **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**

○ 체코·폴란드 등 **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**는 패키지 마련과 **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**하고, 노형 수출, 기자재 수출, 운영·서비스 수출 등 **수출방식도 다각화**하는 등 **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**

* **(체코)** 신규 1기 건설 입찰 착수('22.3), 약 8조원, **(폴란드)** 신규 6기 건설 계획('21.2), 40~50조원

○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**「원전수출 전략추진단」을 7월에 발족**하여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, **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여 전담관 파견**도 추진

○ **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**하기 위해 **맞춤형 입찰 정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가동**하고, 수출에 필요한 **글로벌 인증 지원, 해외 벤더 등록,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함**

* 글로벌 인증 지원 : 지원기업수 확대(연 65→100개), 평균지원비 상향(6→7.8천만원) 등

** 벤더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 : 연 35개 → 65개

3 **(금융애로 해소)** 중소기업 정책자금, 기술보증,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**'22년에 3,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**

※ 중소기업 정책금융 세부내용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(중기부) 참고

○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**2,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**하고, **투자형 지원규모**도 현재 120억원에서 **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**

○ 또한, **금융기관*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'금융 상담데스크'**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**'원전산업 경쟁력 TF'를 운영**하여 원전업계의 **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**

*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신용보증재단, 기술보증재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

4 **(기술역량 강화) 원자력 R&D에 금년에 6,700억원, '23년부터 '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**

○ 금년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, 이를 토대로 **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**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**해외수요 연계형 R&D에 집중 투자**하는 한편, 원자력 연료와 소재·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**핵심품목을 관리**

○ 원자력 수소, 원전해체, 방폐물 관리 등 **차세대 기술**과 원전의 **안전성 향상,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**

5 **(인력 양성) 원자력 R&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**하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, **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'23년에 신설**하여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·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 양성

○ **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**을 위해 **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**하고,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,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**교육 프로그램을 운영**

* 인턴 채용, 정규직 전환, 재취업 등 인건비 40~80% 지원(4~6개월)

6 **(SMR(소형모듈원전) 및 원전수소)** 국내 독자모델인 **혁신형 SMR의 개발·상용화에 '28년까지 3,992억원을 집중 투자**

○ 중소·중견 기자재업체의 **SMR 공급역량 확보**를 위한 R&D, 기술 분석·검증, 성능인증, 장비 활용 등을 지원

○ 또한, **SMR 개발과 병행하여 해외 마케팅도 추진**하는 한편, **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**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**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**을 위해 **기반연구* 및 계통영향 분석**을 선행하고, 이를 바탕으로 **실증, 법제도 정비, 해외원전 수주 연계**를 추진

* 인허가 요건 분석, 안전성·경제성 검증 등('22~'24)

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

□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**1,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**을 공급하고, **시중은행 협력**을 통한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, **상생협력 기반**의 원전 중소기업 **기술혁신**을 추진

1 **(정책금융)**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**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**하고 **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**하는 등 **총 1,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**을 마련

○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**운전자금 300억원**,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**시설자금 200억원**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, **시설자금 지원한도**도 **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**

* 상환일정 : (운전) 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 (시설) 4년 거치, 6년 분할상환
금리 : (운전) 2.65% (시설) 2.35% vs 시중은행 中企 평균금리('22.4) 3.67%

○ 또한, **기술보증**의 경우 **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**을 통해 **보증료 감면**(△0.3%p), **보증비율 상향**(85%→95%)을 지원하고, **경영애로기업**은 **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**에 대해 **만기연장**을 시행할 계획

2 **(재기 지원) 부실이 발생한 기업**(이자보상배율 1미만, 워크아웃 신청 등)은 **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**을 통해 **경영정상화**를 지원

○ 기존에 **은행이 대출**했던 기업에 대해 **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, 은행**은 기존 대출의 **만기연장**(1년 내외)과 **금리인하**(상한 3~4%) 등을 지원

* 현재 기업·농협·수출입·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, 향후 확대 추진

3 **(상생 기반 기술혁신) 원전 중소기업 특화 R&D를 신설**하고, **한수원과의 협력**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

○ 먼저, 올해 **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&D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**하고, 내년에는 **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&D를 신설**할 계획

○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**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**하고('22.下, 9개 → '23, 15개),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**동반성장기금을 조성**('22년, 11억원)할 예정

□ 한편, 간담회에서 **두산에너빌리티는**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, 품질전문가 파견 등 **기술지원을 확대**하고,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**대출 확대, 품질 인증 지원,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** 등 **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**하였음

□ **산업부와 중기부**는 **원전 협력업체**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,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여 **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**해나갈 것이라고 밝힘

【참 고】 1.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주요 내용
2.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이헌두 사무관(☎044-203-5321),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고건호 사무관(☎044-204-75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주요 내용

◇ 조기 일감 공급, 금융애로 해소, R&D 투자 등 **금년중 1조원 규모를 투입**해 **원전업계의 당면 어려움을 적극 해소**하고, **경쟁력을 강화**

1 원전 일감 조기 공급

○ **(예비품 등 조기 발주)** 주기기·보조기기 예비품 및 원전공기업 추가 투자 등 **'22년 805억원을 긴급 발주**

- **'22~'25년에 걸쳐** 예비품 추가 확보,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 일감 등 **8,9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추가 공급**

  * 8,900억원 중 2,800억원을 금년내 조기 계약 추진

○ **(신한울 3·4호기 일감) '22년에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** 조기 집행

- **'22~'25년에는 착공보다 앞당겨서 약 1,891억원을 집행**하고, **주계약 체결**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을 거쳐 **조속히 체결**

  * 신한울 3·4 건설시 **협력업체 예상 발주물량은 약 6.3조원**

2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원전 수출 확대

○ **(전략적 수주) 체코, 폴란드** 등 사업자선정 임박 국가는 **패키지전략 마련, 민관협의체 가동, 정부 고위급 수주활동**에 역량 결집

- **①노형 수출, ②기자재 수출, ③운영·서비스** 등 **국가별 수출방식도 다각화**

○ **(원전수출전략추진단)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결집**하기 위해 **금융, 경협, 방산**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**7월중 신설·가동**

- **주요 수출전략국**(체코, 폴란드 등)을 **거점공관으로 지정**, 전담관을 파견

○ **(GVC 진입)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가동**('22.하~), 국내외 **주요 인증***, **해외 벤더 등록** 등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시장 개척 지원

* 지원기업수 확대(年 65→100개), 평균지원비 상향(6→7.8천만원) 등

3 금융애로 해소

○ **(정책자금) 500억원을 추가 확보·지원**하고,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 **지원한도를 現 60→100억원으로 확대**

○ **(기술보증) 최대 50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례보증을 신설**하고, **보증료 감면**(△0.3%p), **보증비율 상향**(85% → 95%) 지원

*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보증 만기연장(1년 단위) 및 추가보증 지원

○ **(융자·펀드)** 한수원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**現 1,500→2,000억원으로 확대**하고, **투자형 지원규모도 320억원 증액**

○ **(현장애로 해소) 찾아가는 상담데스크*** 운영(6월~), **원전산업 경쟁력 TF 구성·가동**(산업부 2차관)을 통해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

* 산업은행, IBK, 신보, 기보, 중진공 등

4 원전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

○ **(기술역량 강화)** 원전 밸류체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**국산화, 수출기자재, 차세대기술** 등 **원자력 R&D 투자 강화**('22~'26년 4.2조원)

- **원전 핵심기술 보호**와 **핵심품목 자립화** 등 **공급망 안보 강화**

* 원전분야 국가핵심기술(現 5개) 적기 발굴·확대

○ **(전문인력 양성) 원자력 R&D에 대학 참여 확대, 고준위 융합대학원 신설**('23년, 서울대) 등 **미래시장 주도 고급 전문인력 양성**

- **졸업생, 퇴·재직자, 기능인력** 등 **산업현장의 안정적 인력수급 지원**

*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 인턴십·정규직 전환 지원, 퇴·재직자 및 기능인력 양성 교육 등

5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

○ **(SMR) 혁신형 SMR 개발·상용화**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자*하고, 원전업체의 **SMR 공급역량 확보** 및 **해외진출 지원**

* 혁신형 SMR 핵심기술개발사업('23~'28년, 총 3,992억원)

○ **(원전수소) 가동원전 연계 수소 생산**을 위한 **기반연구**('22~)를 바탕으로 **실증, 법제도 정비, 해외원전 수주 연계** 추진

참고 2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

◇ **원전기업** 및 원전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하는 **협력업체**를 대상으로 **중소기업 정책자금** 등 **집중 지원**

1 **(정책자금)** '22.5월말 기준, 금년도 원전기업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**433억원**으로, **원전기업**에 대해 **500억원 우선 지원**

* 원전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'16년도 지원실적(1,144억원)을 감안할 때, 금년 500억원 추가 지원 시 현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

○ **(운전)** 그간 원전기업은 **운전자금 수요가 많았던 점**을 고려하여,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**운전자금**(긴급경영안정자금)을 **300억원 우선 지원**

○ **(시설)** 원전산업 재활성화 기대에 따른 **신규 설비투자**를 위해 **시설자금**(신성장기반자금)을 **200억원 우선 배정**하고, **지원한도**도 확대(60→100억원)

2 **(기술보증)** 원전기업 등에 대해 금년 내 최대 500억원 규모의 **특례보증**을 **신설**하고 **보증료 감면**(△0.3%p), **보증비율 상향**(85%→95%) 추진

* 경영애로 기업(매출액 급감 등)은 기존 기보 보증 전액 만기연장, 필요시 추가보증 지원

3 **(재기지원)** 부실 발생기업(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)에 **중진공이 추가 대출시 은행***은 기존 대출의 **만기연장**(1년 내외)과 **금리인하**(상한 3~4%) 등 지원

* 현재 기업·농협·수출입·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협약되어 있으며, 향후 확대 추진

4 **(R&D)** **원전 중소기업**에 대해 **R&D 200억원**을 올해 **우선 지원**하고, **원전 중소기업**에 **특화**된 **R&D** 신설 추진('23, 120억원)

5 **(스마트공장)** 한수원이 **원전 중소기업**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**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**('22.下, 9개 → '23, 15개)